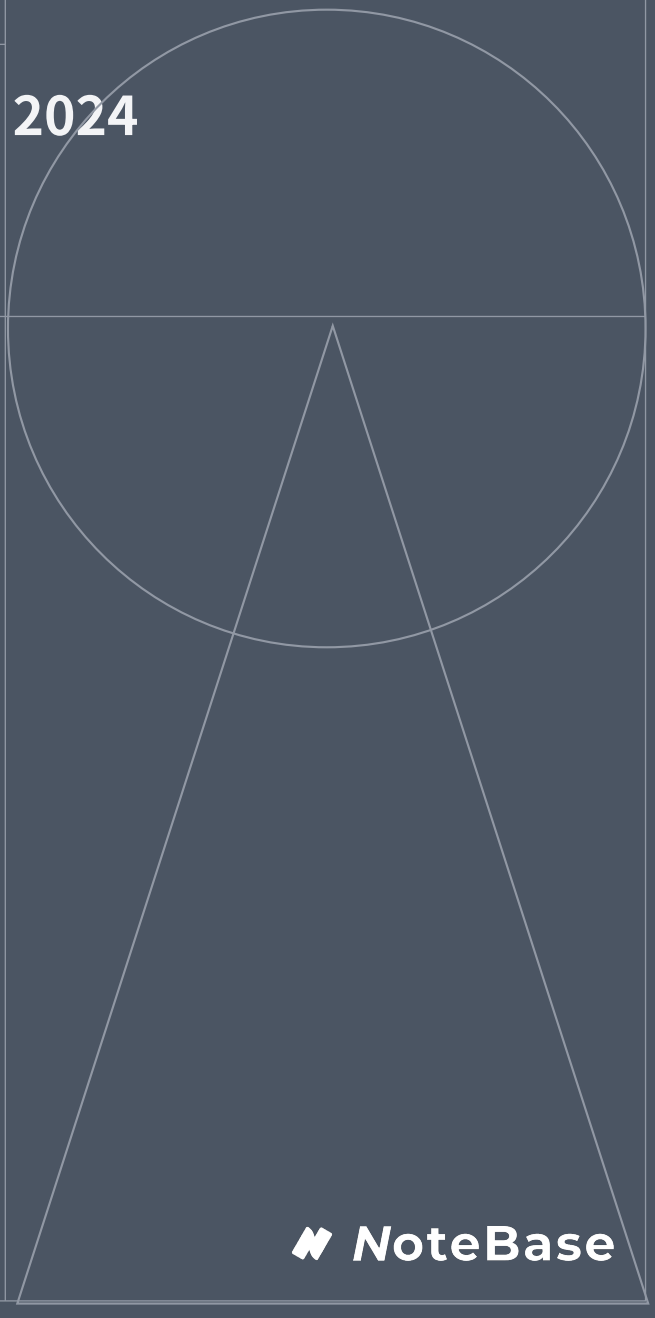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4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4

공무원/국회직/9급 · 국어 · 2024

1. 로마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로: Jongno
② 백마: Baengma
③ 학여울: Hagyeoul
④ 신문로: Sinmunno
⑤ 왕십리: Wangsimni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서 발음상 음운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된 소리를 로마자로 어떻게 적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어의 로마자 표기에서는 자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를 표기에 반영한다. 따라서 지명을 한글 철자대로 단순히 옮기지 않고 실제 발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는 비음화, 유음의 비음화, ㄴ 첨가가 핵심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종로'는 [종노]로 발음되므로 Jongno로 적는다.
② O — '백마'는 비음화되어 [뱅마]로 발음되므로 Baengma로 적는다.
③ X — '학여울'은 ㄴ 첨가와 비음화를 거쳐 [항녀울]로 발음된다. 'Hagyeoul'은 이러한 음운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틀린 표기이며, 올바른 표기는 Hangnyeoul이다.
④ O — '신문로'는 [신문노]로 발음되므로 Sinmunno로 적는다.
⑤ O — '왕십리'는 [왕심니]로 발음되므로 Wangsimni로 적는다.

오답 포인트

③의 'Hagyeoul'은 한글 철자 '학여울'을 음절별로 바로 옮긴 듯 보여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항녀울]에서 나타나는 ㄴ 첨가와 비음화를 모두 반영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명에 받침 뒤의 ㄹ·ㅁ·ㄴ이나 '여'와 같은 음절이 이어지면 먼저 실제 발음을 확인한다. 비음화나 ㄴ 첨가가 일어나면 변화된 발음을 기준으로 로마자 표기의 자음이 맞는지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학여울 [항녀울] → Hangnyeoul: ㄴ 첨가 후 비음화를 함께 반영한다.

NoteBase

2. 한자성어의 뜻이 옳지 않은 것은?

① 九曲肝腸: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이름.
② 讀書三昧: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책 읽기에만 몰두함.
③ 磨斧爲針: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
④ 臥薪嘗膽: 원수를 갚으려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딤.
⑤ 兎死狗烹: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한자성어를 이루는 글자의 기본 뜻과 유래를 바탕으로 성어의 실제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九曲肝腸(구곡간장): 굽이굽이 서린 창자라는 뜻으로, 깊은 마음속이나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이른다.
讀書三昧(독서삼매):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책 읽기에만 몰두한 상태를 이른다.
磨斧爲針(마부위침):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뜻으로, 끈기 있게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음을 이른다.
臥薪嘗膽(와신상담): 섶에 눕고 쓸개를 맛보며 원수를 갚기 위해 괴로움을 참고 견딤을 이른다.
兎死狗烹(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는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 이용한 사람을 일이 끝난 뒤 버림을 이른다.

선지별 해설

① O — 九曲肝腸은 깊은 마음속 또는 시름이 쌓인 마음속을 뜻하므로 풀이가 옳다.
② O — 讀書三昧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책 읽기에만 정신을 집중한 상태이므로 풀이가 옳다.
③ O — 磨斧爲針은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듯이 끊임없이 노력하면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이므로 풀이가 옳다.
④ O — 臥薪嘗膽은 원수를 갚으려는 뜻을 품고 온갖 괴로움을 참고 견딘다는 뜻이므로 풀이가 옳다.
⑤ X — 틀린 부분은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이다. 兎死狗烹은 필요할 때 이용한 사람을 일이 끝난 뒤 버린다는 뜻이다. 선지의 풀이는 '안하무인'에 가깝다.

오답 포인트

⑤의 부정적인 의미만 보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兎死狗烹의 핵심은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목적을 이룬 뒤 쓸모가 없어진 사람을 버리는 상황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어의 한자를 짧은 장면으로 바꾸어 판단한다. 兔死狗烹은 '토끼가 죽자 사냥개를 삶는다'는 장면이므로, 일이 끝난 뒤 공이 있는 사람을 버린다는 의미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토사구팽은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도 버린다', 안하무인은 '눈 아래 사람이 없다'이다.

NoteBase

3.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① 비행시에는∨휴대폰을∨꺼∨두시기∨바랍니다.
② 정부가∨그∨동안∨준비해∨왔던∨대책을∨발표했다.
③ 매년∨총∨매출액의∨1%씩∨기부하기로∨하였습니다.
④ 8월∨1일∨자∨신문에∨제가∨쓴∨글을∨한∨편∨실었습니다.
⑤ 인터넷∨상에∨공개된∨정보라도∨함부로∨활용할∨수∨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존 명사와 보조 용언은 띄어 쓰고, 한 단어로 굳어진 말과 접사는 앞말에 붙여 쓰는 원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존 명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지만 하나의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보조 용언도 원칙적으로 앞말과 띄어 쓴다. 반면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 합성어와 접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이 문항에서는 '시', '자', '편'은 의존 명사이고, '그동안', '총매출액'은 한 단어이며, '-상'은 접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비행시'의 '시'는 '때'를 뜻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올바른 표현은 '비행 시에는 휴대폰을 꺼 두시기 바랍니다.'이다.
② X — 일정한 기간을 뜻하는 '그동안'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올바른 표현은 '정부가 그동안 준비해 왔던 대책을 발표했다.'이다.
③ X — 전체 매출액을 뜻하는 '총매출액'은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올바른 표현은 '매년 총매출액의 1%씩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이다.
④ O — 날짜 뒤의 '자'는 발행 일자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1일 자'로 띄어 쓰며, 글을 세는 단위인 '편'도 의존 명사이므로 '한 편'으로 띄어 쓴다.
⑤ X —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사 '-상'은 앞말에 붙여 쓴다. 올바른 표현은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라도 함부로 활용할 수 없다.'이다.

오답 포인트

'시', '자', '편'처럼 짧은 말은 앞말에 붙이기 쉽고, 반대로 '그동안', '총매출액', '인터넷상'처럼 여러 요소로 이루어진 한 단어는 띄기 쉽다. 특히 ④의 '1일 자'와 '한 편'은 모두 의존 명사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 뒤의 요소가 '때·날짜·수량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지 먼저 확인한다. 의존 명사이면 띄어 쓰고,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나 접사이면 붙여 쓴다. 보조 용언은 원칙적으로 앞말과 띄어 쓴다.

암기 포인트

비행 시·1일 자·한 편은 띄고, 그동안·총매출액·인터넷상은 붙인다.

NoteBase

4.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① 뵙다, 헷갈리다, 가엽다, 열두째
② 뵙다, 헛갈리다, 가엾다, 열두째
③ 뵙다, 섞갈리다, 가엾다, 열둘째
④ 뵙다, 헷갈리다, 가엽다, 열둘째
⑤ 뵈다, 헛갈리다, 가여웁다, 열두째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비슷하게 들리는 말 가운데 표준어인 기본형을 정확히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원칙으로 정한 말이다. 이 문항에서는 '뵙다·뵈다', '헷갈리다·헛갈리다', '가엾다·가엽다'가 표준어이고, 열두 번째를 뜻하는 말은 '열두째'이다. '봬'는 '뵈어'가 준 활용형이므로 기본형처럼 '뵙다'라고 쓰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뵙다, 헷갈리다, 가엾다, 열두째'는 모두 표준어이다.
② X — '뵙다'가 잘못되었다. 기본형은 '뵙다' 또는 '뵈다'이고, '뵈어'가 줄면 '봬'가 된다. '헛갈리다'는 '헷갈리다'와 함께 표준어이다.
③ X — '섞갈리다'와 '열둘째'가 잘못되었다. 각각 '헷갈리다' 또는 '헛갈리다', '열두째'로 고쳐야 한다.
④ X — '뵙다'와 '열둘째'가 잘못되었다. 각각 '뵙다' 또는 '뵈다', '열두째'로 고쳐야 한다. '가엽다'는 '가엾다'와 함께 표준어이다.
⑤ X — '가엽우다'가 잘못되었다. '가엽다' 또는 '가엾다'로 고쳐야 한다. '뵈다', '헛갈리다', '열두째'는 표준어이다.

오답 포인트

'헷갈리다/헛갈리다'와 '가엾다/가엽다'는 어느 한쪽만 맞는 말이 아니라 둘 다 표준어라는 점이 함정이다. 또한 활용형 '봬'를 보고 존재하지 않는 기본형 '뵙다'를 만들거나, '둘째'에 이끌려 '열둘째'라고 쓰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준말과 기본형을 구분하고, 복수 표준어는 한쪽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봬'를 '뵈어'로 풀 수 있으면 활용형이고 기본형은 '뵈다'이며, 열두 번째의 순서 표현은 '열두째'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뵙다·뵈다, 헷갈리다·헛갈리다, 가엾다·가엽다는 표준어이고, 뵀다·섞갈리다·가엽우다·열둘째는 표준어가 아니다.

NoteBase

5. 다음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고무줄을 (㉠).
> ○ 바짓단을 (㉡).

	㉠	㉡
①	늘이다	늘리다
②	늘이다	늘이다
③	늘리다	늘이다
④	늘리다	늘리다
⑤	늘리다	넓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늘이다'와 '늘리다'의 뜻을 구별하여 문맥에 맞는 말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늘이다'는 물체의 길이를 본디보다 더 길게 한다는 뜻이다. 고무줄이나 바짓단처럼 길이를 길게 만드는 대상에는 '늘이다'를 쓴다.
'늘리다'는 수나 분량, 시간, 규모 등을 본디보다 많거나 크게 한다는 뜻이다. 인원, 재산, 기간, 실력 등을 증가시키는 경우에 주로 쓴다.

선지별 해설

① X — '고무줄을 늘이다'는 맞지만, '바짓단을 늘리다'는 틀리다. 바짓단의 길이를 길게 한다는 뜻이므로 '바짓단을 늘이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 고무줄과 바짓단은 모두 길이를 길게 하는 대상이므로 두 문장 모두 '늘이다'가 알맞다.
③ X — '바짓단을 늘이다'는 맞지만, '고무줄을 늘리다'는 틀리다. 고무줄의 길이를 길게 한다는 뜻이므로 '고무줄을 늘이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 두 자리의 '늘리다'가 모두 틀리다. '고무줄을 늘이다', '바짓단을 늘이다'로 고쳐야 한다.
⑤ X — '고무줄을 늘리다'와 '바짓단을 넓히다'가 모두 틀리다. 길이를 길게 한다는 뜻이므로 각각 '고무줄을 늘이다', '바짓단을 늘이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늘이다’와 ‘늘리다’는 발음과 형태가 비슷하지만 판단 기준이 다르다. 이 문항에서는 고무줄과 바짓단의 수나 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길이를 길게 하므로 두 빈칸 모두 ‘늘이다’가 들어간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대상의 길이를 직접 길게 하는 상황이면 ‘늘이다’를, 수·양·시간·규모 등을 증가시키는 상황이면 ‘늘리다’를 선택한다.

암기 포인트

길이는 ‘늘이다’, 수와 양은 ‘늘리다’로 구별한다.

NoteBase

6.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들 모이셨나요? 안녕들 하세요?

① '들판'에 쓰인 '들'처럼 명사로 쓰였다.
②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는 의존명사로 쓰였다.
④ '너희들'의 '들'처럼 복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⑤ '들쑤시다'라는 단어에서 쓰인 것처럼 접두사로 쓰였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장 속 '들'의 문법적 지위와 기능을 문맥에 따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보조사 '들'은 문장 성분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 '다들 모이셨나요?'와 '안녕들 하세요?'의 '들'은 모두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임을 드러낸다.
'들'은 문맥에 따라 들판을 뜻하는 명사, 열거한 대상을 아우르는 의존 명사, 복수를 나타내는 접미사 '-들', 접두사 '들-'로도 쓰이므로 앞말과 문장 안의 기능을 확인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밑줄 친 '들'은 들판을 뜻하는 명사가 아니다. '들판'의 '들'처럼 쓰인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는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② O — '다들', '안녕들'의 '들'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여러 사람이 안녕한지를 묻는다는 뜻을 더하므로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 X — 밑줄 친 '들' 앞에는 여러 사물이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열거한 사물 모두를 가리키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올바르게는 주어의 복수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④ X — 밑줄 친 '들'을 '너희들'의 '-들'과 같은 복수 접미사로 본 부분이 틀리다. '너희들'의 '-들'은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그 말 자체를 복수로 만드는 접미사이지만, 제시문의 '들'은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⑤ X — 밑줄 친 '들'은 '들쑤시다'의 '들-'처럼 앞에 붙는 접두사가 아니다. 올바르게는 앞말 뒤에 붙어 주어의 복수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들’이 언제나 복수 접미사라고 생각하면 ④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안녕들 하세요?’처럼 ‘들’이 주어가 아닌 말에 붙으면서 주어가 여러 명임을 나타내면 보조사로 판단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들’이 붙은 말 자체를 복수로 만들면 접미사이고, 문장 안의 다른 성분에 붙어 주어가 복수임을 드러내면 보조사이다. 열거가 있는지, ‘들’이 앞에 붙는지, 들판이라는 실질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대상 자체의 복수는 접미사 ‘-들’, 문장 주어의 복수 표시는 보조사 ‘들’이다.

NoteBase

7.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은?

① 반짓고리
② 사흘날
③ 삼짓날
④ 이틀날
⑤ 푿소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끝소리가 'ㄹ'인 말이 다른 말과 결합할 때 그 'ㄹ'이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 소리대로 'ㄷ'으로 적는 한글 맞춤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끝소리가 'ㄹ'인 말과 다른 말이 어울리면서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바뀌면 받침을 'ㄷ'으로 적는다.
'바느질+고리→반짇고리', '사흘+날→사흗날', '삼질+날→삼짇날', '이틀+날→이튿날', '풀+소→푿소'가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반짓고리'의 받침 'ㅅ'이 틀렸다. '바느질'과 '고리'가 결합하면서 'ㄹ'이 'ㄷ' 소리로 나므로 '반짇고리'로 적는다.
② X — '사흘날'은 원형을 그대로 적은 잘못된 표기이다. '사흘'과 '날'이 결합할 때 'ㄹ'이 'ㄷ'으로 소리 나므로 '사흗날'로 적는다.
③ X — '삼짓날'의 받침 'ㅅ'이 틀렸다. '삼질'과 '날'이 결합하면서 'ㄹ'이 'ㄷ' 소리로 나므로 '삼짇날'로 적는다.
④ X — '이틀날'은 원형을 그대로 적은 잘못된 표기이다. '이틀'과 '날'이 결합할 때 'ㄹ'이 'ㄷ'으로 소리 나므로 '이튿날'로 적는다.
⑤ O — '푿소'는 '풀'과 '소'가 결합한 말로, 'ㄹ'이 'ㄷ' 소리로 나기 때문에 받침을 'ㄷ'으로 적은 올바른 표기이다.

오답 포인트

'반짓고리'와 '삼짓날'을 사이시옷 표기로 생각하거나, '사흘날'과 '이틀날'처럼 원형의 'ㄹ'을 그대로 적기 쉽다. 이 문항의 낱말들은 사이시옷 여부가 아니라 결합 과정에서 'ㄹ'이 'ㄷ' 소리로 바뀌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앞말의 끝소리가 'ㄹ'인지 확인한 뒤, 다른 말과 결합할 때 그 소리가 'ㄷ'으로 바뀌는 낱말이면 받침을 'ㄷ'으로 적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반짇고리·사흗날·삼짇날·이튿날·푿소는 모두 'ㄹ→ㄷ' 표기이다.

NoteBase

8. ㉠~㉤ 중 <보기>의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은?

< 보 기 >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일탈과 어떤 형태의 다름이 소속이나 존중이나 인정과 관련해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표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 (㉠) 다수와 비슷한 속성을 지닌 사람은 표준을 규정하는 다수와 닮았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착각할 수 있다. (㉡)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배제하거나 비하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용인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힘을 행사하는지 감도 잡지 못한다. (㉢) 하지만 인권이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 또한 표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배제되고 멸시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한다. (㉤) 자신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는 이들의 감정에 이입해 보아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속 표현과 내용의 논리적 연결을 바탕으로 주어진 문장의 위치를 찾는 문제이다. 주어진 문장의 '그러므로'가 앞내용의 결론을 나타내고, 본문의 '또한'이 그 결론에 행동 지침을 덧붙인다는 점이 핵심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1.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표준의 존재나 자신이 누리는 용인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2. 하지만 인권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3. 그러므로 어떤 일탈과 다름이 소속·존중·인정과 관련하여 유의미하게 취급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4. 또한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의 배제와 멸시 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감정에 이입해 봐야 한다.

왜 이 순서인가: 주어진 문장의 '그러므로'는 바로 앞의 보편적 인권 원칙에서 실천적 결론을 이끌고, 뒤의 '또한'은 그 결론과 나란한 추가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ㄱ X — 첫 문장은 표준에 부합하는 사람의 착각을 제시하고, 다음 문장은 '다수와 비슷한 속성'을 근거로 그 착각을 구체화한다. 이 사이에 결론을 뜻하는 '그러므로'를 넣으면 근거와 구체적 설명의 연결이 끊긴다. 틀린 위치 ㄱ → 올바르게는 ㄹ에 들어간다.

② ㄴ X — 앞에서는 표준과 닮은 것이 의미 없다고 여기는 착각을 말하고, 뒤에서는 타인을 배제하거나 비하하는 일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또 다른 문제를 제시한다. 아직 '그러므로'로 전체 논의를 결론지을 단계가 아니다. 틀린 위치 ㄴ → 올바르게는 ㄹ에 들어간다.

③ ㄷ X — 뒤의 '하지만'은 앞에서 설명한 표준 집단의 무감각과 대조하여 인권의 보편성을 제시한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주어진 문장을 '하지만' 바로 앞에 놓으면 결론 뒤에 다시 핵심 원칙이 나와 논리적 선후가 뒤바뀐다. 틀린 위치 ㄷ → 올바르게는 ㄹ에 들어간다.

④ ㄹ O — 앞 문장의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근거로, 어떤 다름이 소속·존중·인정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어지는 '또한'은 표준에서 벗어난 사람의 경험에 귀를 기울이라는 추가 실천 방안을 덧붙인다.

⑤ ㅁ X — 앞 문장의 '귀 기울여야 한다'와 뒤 문장의 '감정에 이입해 봐야 한다'는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는 연속된 행동 지침이다. 그 사이에 더 포괄적인 결론문을 넣으면 '또한'으로 시작된 내용의 긴밀한 연결이 끊긴다. 틀린 위치 ㅁ → 올바르게는 ㄹ에 들어간다.

오답 포인트

주어진 문장이 글 전체의 결론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맨 끝인 ㅁ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접속어를 연달아 확인하면 '하지만'이 보편적 인권 원칙을 제시하고, '그러므로'가 그 원칙에서 결론을 이끌며, '또한'이 추가 행동 지침을 보태는 '하지만 → 그러므로 → 또한'의 흐름이 성립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 삽입 문제에서는 주어진 문장의 첫 접속어가 요구하는 앞내용과 삽입 지점 뒤 문장의 접속어가 요구하는 관계를 함께 확인한다. '그러므로' 앞에는 원인·근거가, '또한' 앞에는 병렬적으로 덧붙일 내용이 와야 한다.

암기 포인트

'하지만'은 전환, '그러므로'는 결론, '또한'은 추가이다. 이 문제의 연결 순서는 '전환 → 결론 → 추가'이다.

NoteBase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어떤 소리가 음운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 대립쌍(minimal pair)을 찾아보는 것이 편리하다. 최소 대립쌍이란 오로지 같은 자리에 오는 하나의 음운만 차이가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말한다. 최소 대립쌍을 만들어 주는 두 소리는 모두 별개의 음운에 속한다.
>
> 최소 대립쌍을 설정할 때 주의해야 할 기준으로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양적 대등성'은 최소 대립쌍을 이루는 두 단어의 음운 개수가 동일해야 한다는 조건이고, '질적 대등성'은 최소 대립쌍을 만드는 두 소리의 성질이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① '고리'와 '오리'는 2음절로 이루어진 최소 대립쌍이다.

② '일'과 '길'은 양적 대등성의 조건에서 볼 때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③ '사이'와 '살'은 질적 대등성의 조건에서 볼 때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④ '물'과 '불'은 하나의 음운만 차이가 남으로써 그 뜻이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이다.

⑤ 'ㅂ'과 'ㅎ'을 별개의 음운으로 설명하는 최소 대립쌍의 예로 '박'과 '학'을 들 수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최소 대립쌍을 판별할 때 음절 수가 아니라 음운의 개수와 종류를 기준으로 양적 대등성과 질적 대등성을 확인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최소 대립쌍: 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의 음운만 달라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쌍이다.

양적 대등성: 두 단어를 이루는 음운의 개수가 같아야 한다.

질적 대등성: 서로 대립하는 두 소리가 같은 성질, 즉 자음끼리 또는 모음끼리 대응해야 한다.

음절의 첫소리에 쓰인 'ㅇ'은 소리값이 없으므로 음운으로 세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고리’와 ‘오리’는 2음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소 대립쌍이 되지 않는다. ‘고리’는 ㄱ, ㅗ, ㄹ, ㅣ의 4개 음운이고, ‘오리’의 첫소리 ‘ㅇ’은 소리값이 없어 ㅗ, ㄹ, ㅣ의 3개 음운이므로 양적 대등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2음절로 이루어진 최소 대립쌍’이며, 올바르게는 ‘두 단어의 음절 수는 같지만 음운의 개수가 달라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이다.

② O
‘일’은 ㅣ, ㄹ의 2개 음운이고 ‘길’은 ㄱ, ㅣ, ㄹ의 3개 음운이므로 음운의 개수가 다르다. 양적 대등성을 충족하지 않아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③ O
‘사이’는 ㅅ, ㅏ, ㅣ이고 ‘살’은 ㅅ, ㅏ, ㄹ이어서 음운의 개수는 같지만, 대립하는 ㅣ는 모음이고 ㄹ은 자음이다. 두 소리의 성질이 다르므로 질적 대등성을 충족하지 않아 최소 대립쌍이 아니다.

④ O
‘물’과 ‘불’은 같은 자리의 자음 ㅁ과 ㅂ만 다르고 그 차이로 뜻이 구별된다. 두 단어의 음운 수도 같으므로 최소 대립쌍이다.

⑤ O
‘박’과 ‘학’은 같은 자리의 ㅂ과 ㅎ만 다르고 뜻이 구별되는 최소 대립쌍이다. 따라서 ㅂ과 ㅎ이 서로 다른 음운임을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①의 ‘2음절’에만 주목하면 두 단어의 길이가 같다고 착각하기 쉽다. 최소 대립쌍의 양적 대등성은 음절 수가 아니라 음운 수를 비교하며, 첫소리 ‘ㅇ’은 소리값이 없어 음운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③은 음운 수는 같지만 모음 ㅣ와 자음 ㄹ이 대립하므로 질적 대등성에서 탈락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단어를 실제 소리값이 있는 음운으로 나눈 뒤, 음운 수가 같은지, 다른 부분이 정확히 한 자리인지, 그 두 소리가 자음끼리 또는 모음끼리인지, 그 차이로 뜻이 구별되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최소 대립쌍은 ‘같은 음운 수, 같은 성질의 한 음운만 교체, 뜻 구별’이며, 초성 ㅇ은 음운으로 세지 않는다.

NoteBase

10. ㉠과 ㉡의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같지 않은 것은?

	㉠	㉡
①	맛난 음식을 사 먹자.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언제였지?
②	오늘 하늘이 참 맑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가 길을 막다.
③	흙을 밟고 다니지 마라.	조명이 밝고 실내가 화사하다.
④	언제 이 일을 할는지 모르겠다.	강아지가 왜 이리 핥는지 모르겠다.
⑤	이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다.	고구마가 푹 익지 않았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겹받침이 자음 앞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와 뒤 자음의 된소리되기를 적용하여 두 밑줄 부분의 발음이 같은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받침 뒤에 자음이 오면 받침의 대표음, 비음화, 된소리되기 등을 차례로 적용한다. 특히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지만, '밝-'의 겹받침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맛난’은 받침 ㄷ이 뒤의 ㄴ 앞에서 비음화되어 [만난]으로 발음되고, ‘만난’도 [만난]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발음이 같다.

② X
- ‘맑다’는 겹받침 ㄺ에서 ㄱ이 발음되고 뒤의 ㄷ이 된소리가 되어 [막따]로 발음된다. ‘막다’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막따]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발음이 같다.

③ O
- ‘밟고’는 ‘밟-’이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되고 뒤의 ㄱ이 된소리가 되어 [밥꼬]가 된다. ‘밝고’는 ㄺ이 ㄱ 앞에서 ㄹ로 발음되고 뒤의 ㄱ이 된소리가 되어 [발꼬]가 된다. [밥꼬]와 [발꼬]는 서로 다르다.

④ X
- 두 문장의 밑줄 부분은 모두 ‘하는지’이며 [하는지]로 발음된다. 따라서 같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 발음이 같다.

⑤ X
- ‘읽지’는 겹받침 ㄺ에서 ㄱ이 발음되고 뒤의 ㅈ이 된소리가 되어 [익찌]로 발음된다. ‘익지’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나 [익찌]로 발음된다. 따라서 두 발음이 같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밟고’와 ‘밝고’에 모두 겹받침이 있다는 점만 보고 같은 소리가 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밟-’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소리 나고, ‘밝-’의 ㄺ은 ㄱ 앞에서 ㄹ로 소리 난다는 차이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겹받침에서 실제로 소리 나는 자음을 정한 뒤, 다음 자음에 된소리되기나 비음화가 일어나는지를 적용하여 최종 발음을 비교한다. ‘밟-’의 예외 발음과 ㄺ이 ㄱ 앞에서 ㄹ로 소리 나는 경우를 따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밟고는 [밥꼬], 밝고는 [발꼬]이다.

NoteBase

11. 다음 글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과학적 설명이 어떻게 특별할까요? 철학자 칼 헴펠(Carl G. Hempel)이 설명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최초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는 설명하는 것을 설명항이라 부르고, 설명되는 것을 피설명항이라고 부릅니다. 그에 따르면, 설명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설명하는 것과 설명되는 것이 적절하게 관계를 맺어야 하고(설명적 유관성 조건), 두 번째는 설명항 자체가 시험될 수 있어야 합니다(시험가능성 조건).
>
> (중략)
>
> 시험 가능성 조건이란 설명항이 시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증도 안 되고 (㉡)도 안 되는 그런 것, 예를 들어 물속에 막대를 넣을 때마다 악마가 조작하는 거라는 설명항은 시험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이처럼 시험 가능성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철학자 칼 포퍼(Karl Popper)의 통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머리색은 검다고 주장했다면 동시에 머리색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이나 흰색이 아니라는 주장을 동시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장은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동시에 성립합니다. 즉 어떤 모순되는 관찰도 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는 이 세계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으로, 경험적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경험적 내용이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주장을 하려면 뭔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		㉢
①	제시	-	반증	-	배척
②	만족	-	반증	-	기각
③	만족	-	수정	-	배척
④	확인	-	수정	-	기각
⑤	확인	-	방증	-	기각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헴펠의 설명 조건과 포퍼의 반증 가능성에 관한 문맥을 파악하고, 각 빈칸에 어울리는 용어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설명이 성립하려면 설명적 유관성과 시험 가능성이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한다. 시험 가능성은 설명항이 경험적으로 반증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어떤 주장을 하면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주장은 동시에 기각하게 된다.
핵심 연결은 '조건을 만족하다', '입증도 반증도 되지 않다', '다른 주장을 기각하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의 '제시'와 ㉢의 '배척'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두 조건은 단순히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어야 하므로 ㉠은 '만족',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문맥의 용어는 ㉢ '기각'이다. 올바르게는 '만족-반증-기각'이다.
② O — 설명이 성립하려면 두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고, 입증도 '반증'도 할 수 없는 설명은 시험할 수 없다. 하나의 주장은 그와 양립하지 않는 다른 주장을 '기각'함으로써 경험적 내용을 갖는다.
③ X — ㉡의 '수정'과 ㉢의 '배척'이 적절하지 않다. 시험 가능성은 설명항이 틀렸음을 경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반증' 가능성을 뜻하며,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문맥의 용어는 '기각'이다. 올바르게는 '만족-반증-기각'이다.
④ X — ㉠의 '확인'과 ㉡의 '수정'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두 조건은 '만족'되어야 하며, 설명항은 입증뿐 아니라 '반증'도 가능해야 한다. ㉢의 '기각'은 적절하므로 올바르게는 '만족-반증-기각'이다.
⑤ X — ㉠의 '확인'이 문맥에 맞지 않는다. 설명이 성립하기 위한 두 조건은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만족'되어야 한다. ㉡ '반증'과 ㉢ '기각'은 적절하므로 올바르게는 '만족-반증-기각'이다.

오답 포인트

㉠에서 조건을 살펴본다는 뜻의 '확인'이나 조건을 내놓는다는 뜻의 '제시'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조건이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문맥에서는 '조건이 만족되다'가 정확하다. 또한 포퍼의 시험 가능성은 설명을 고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틀렸음을 드러내는 '반증'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빈칸 앞뒤의 호응어를 먼저 묶는다. '조건이 ___되다'는 '만족되다', '입증도 안 되고 ___도 안 되다'는 반대 관계인 '반증',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은 '기각'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설명의 두 조건은 만족, 시험 가능성은 반증, 양립 불가능한 주장은 기각이다.

NoteBase

12. 다음 글을 이해한 것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설(J. Searle)은 의미의 소재를 언어와 실재의 대응 관계에서 찾으려는 20세기 초의 언어철학적 가정을 거부하고, 의미의 원천을 우리의 마음의 특성인 '지향성'에서 찾으려고 시도함으로써 의미 탐구의 장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 왔다. 의미의 소재를 언어와 세계 사이의 고정된 관계가 아니라, 언어와 언어 사용자 사이의 유동적 관계 속에서 찾으려는 이러한 화용론적 전환은 비트겐슈타인(L. Wittgenstein)의 후기 철학을 통해서 이미 그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설은 지향성 개념을 통해 이러한 전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미의 형성과 구조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해명을 시도하고 있다.

설의 중심적인 언어철학적 관심사는 소리나 문자와 같은 물리적 기호가 어떻게 의미를 갖게 되는지, 나아가 물리적 기호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설은 의사 소통의 기본 단위인 '화행(speech act)'을 일차적인 탐구 과제로 설정한다. 설이 지적하는 것처럼 화행은 일종의 행위다. 따라서 행위로서의 화행의 분석은 단순히 명제적 기호들의 체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수행될 수 없으며, 이에 수반되는 마음의 작용에 대한 탐구를 요구한다.

(중략)

나아가 설의 이러한 주장은 언어철학적 탐구의 새로운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즉, 그것은 명제적 기호들의 결합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탐구가 우리의 사고와 경험의 모든 것을 밝혀 줄 수 있으리라는 초기 분석철학의 낙관적 가정으로부터의 대폭적인 후퇴를 의미한다.

의미에 관한 설의 해명의 중요한 계기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문장 의미가 실제적인 소통 의미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사 소통에서 사용하는 의미의 선택에는 문장 의미 이외의 중요한 요소들이 개입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한 설의 답변이 바로 지향성 이론의 핵심적 골격을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Network)'와 '배경(Back- ground)'이다. 네트워크는 하나의 지향적 상태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지향적 상태들의 집합이다. 특정한 지향적 상태는 바로 이 네트워크와의 상관성 속에서 적절한 의미를 형성한다. 한편, 설은 그 자체로는 지향적 상태는 아니지만 지향적 상태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능력들 또는 전제들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 '배경'이라고 부른다. 배경이란 지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 지반으로서의 '능력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지향적 상태의 의미는 네트워크와 배경의 복합적인 관련성 속에서 구성된다. 이러한 설의 이론은 단일한 기호가 세계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고유한 '문자적 의미'를 얻는다는 고전적 의미 이론과의 결별을 의미한다.

< 보 기 >

ㄱ. 고전적 의미 이론에서는 화행을 일차적 탐구 과제로 생각하지 않았군.

ㄴ.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은 의미를 언어와 실재의 대응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군.

ㄷ. 설은 화행의 분석이 명제를 구성하는 기호 체계의 연구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군.

ㄹ. 고전적 의미 이론에서는 문장 의미 이외의 요소인 네트워크나 배경을 중시하지 않았군.

ㅁ. 배경이 지향적 상태들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능력들이라면 배경도 지향적 상태의 하나겠군.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2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설의 의미 이론을 고전적 의미 이론 및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관점과 비교하고, 화행·네트워크·배경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전적 의미 이론은 단일한 기호가 세계와 맺는 직접적 관계 속에서 고유한 문자적 의미를 얻는다고 본다. 반면 설은 화행을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로 삼고, 실제 문장 의미는 지향적 상태들의 집합인 '네트워크'와 지향성을 가능하게 하는 비지향적 능력·전제인 '배경'의 복합적 관련 속에서 형성된다고 본다.
보기 판단은 ㄱ O, ㄴ X, ㄷ O, ㄹ O, ㅁ X이므로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옳지만 ㄴ과 ㅁ이 틀리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의미를 언어와 실재의 고정된 대응이 아니라 언어와 언어 사용자의 유동적 관계에서 찾았으며, 배경은 지향적 상태가 아니라 지향적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비지향적 능력·전제이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② O — ㄱ, ㄷ, ㄹ이 모두 옳다. 고전적 의미 이론은 화행을 일차적 탐구 과제로 삼지 않았고, 설은 명제적 기호 체계만으로 화행을 충분히 분석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고전적 의미 이론은 네트워크와 배경을 중시하지 않았다.
③ X — ㄷ과 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ㄴ은 '언어와 실재의 대응 관계'가 아니라 '언어와 언어 사용자의 유동적 관계'에서 의미를 찾는다고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④ X — ㄷ은 옳지만 ㄴ과 ㅁ이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ㅁ의 배경은 지향적 상태 중 하나가 아니라 지향적 상태들을 가능하게 하는 비지향적 능력·전제라고 고쳐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⑤ X — ㄷ과 ㄹ은 옳지만 ㅁ이 틀리고, 옳은 ㄱ이 빠져 있다. 배경 자체를 지향적 상태로 볼 수 없으므로 ㅁ 대신 ㄱ을 포함해야 한다. 올바른 조합은 ㄱ, ㄷ, ㄹ이다.

오답 포인트

가장 큰 함정은 '배경이 지향적 상태를 가능하게 한다'는 말과 '배경도 지향적 상태이다'라는 말을 혼동하는 것이다. 지문은 배경 그 자체는 지향적 상태가 아니라고 명시한다. 또한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거부한 고정적 언어·세계 대응 관계를 그의 견해로 뒤집어 제시한 ㄴ에도 주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지문에서 각 개념의 정의와 부정 표현을 표시한다. 이 글에서는 '고정된 언어·세계 대응의 거부', '화행의 일차성', '명제적 기호 연구만으로는 불충분함', '네트워크는 지향적 상태들의 집합', '배경은 비지향적 능력·전제'라는 다섯 기준으로 각 보기를 판정한다.

암기 포인트

네트워크는 지향적 상태의 집합이고, 배경은 그 상태를 가능하게 하는 비지향적 기반이다.

NoteBase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진의 발명으로부터 200년이 채 안 되고 영화의 발명으로부터 100년이 조금 넘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뿐이지만, 이후 토이기, 컬러 필름 등의 발명으로 영화는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텔레비전, 비디오 등이 발명되어 대중들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언제나 자유롭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20세기 말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이미지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대중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온다.
>
> 새로운 매체가 지닌 새로운 전달 방식은 단순한 이미지의 소비자였던 대중들을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에 참여하는 작독자[prosumer(producer+consumer)]가 될 수 있게 했다. 소위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이 이루어져 이미지는 더욱 우리들 가까이에 다가와 있다. 현대인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각자의 방에서 컴퓨터로 영상을 검색하고,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들여다본다. 현대인은 인류 역사의 어느 시기보다 이미지가 과잉된 시대에 이미지 속에 함몰되어 그것을 향유하고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① 새로운 매체로 인해 대중들은 작독자가 되었다.
②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매체 환경이 만들어졌다.
③ 사진보다 영화의 탄생이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④ 이미지 소비자였던 대중은 이미지를 창조하며 살아가고 있다.
⑤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대중들은 이미지 과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글에 직접 제시된 내용과 글에 없는 가치 판단을 구별하여 내용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 일치 판단은 선지의 핵심 표현을 본문의 근거와 대조하는 것이다. 본문에 두 대상의 등장 순서만 제시되었다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는 우열까지 추론할 수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본문은 새로운 매체의 전달 방식으로 대중이 이미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에 참여하는 작동자, 즉 프로슈머가 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대중이 작동자가 되었다는 진술은 글과 일치한다.

② O
본문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발명되고, 컴퓨터와 인터넷의 영향으로 새로운 매체 환경이 등장했으며, 스마트폰으로 유비쿼터스 환경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새로운 매체 환경을 만들었다는 진술은 글과 일치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사진보다 영화의 탄생이 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이다. 본문은 사진이 영화보다 먼저 발명되었다는 시간적 선후와 영화가 이후 과학기술의 발명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는 사실만 제시할 뿐, 두 발명의 역사적 중요성을 비교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사진이 영화보다 먼저 발명되었고, 영화는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해야 한다.

④ O
본문은 대중이 과거에는 단순한 이미지 소비자였지만,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는 이미지를 향유하고 창조하며 생산에도 참여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미지 소비자였던 대중이 이미지를 창조하며 살아간다는 진술은 글과 일치한다.

⑤ O
본문은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검색하고 이미지를 향유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이 이루어졌으며, 현대인은 이미지가 과잉된 시대를 살아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선지의 내용은 글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사진이 먼저, 영화가 나중에 발명되었다'는 시간적 선후를 '영화가 더 중요하다'는 가치의 우열로 바꾼 선지이다. 본문에 없는 비교 기준을 덧붙인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 서술어를 본문과 대조한다. '먼저·나중'은 시간 관계이고 '더 중요하다'는 가치 판단이므로, 본문에 중요성 비교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내용 불일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시간의 선후는 가치의 우열을 뜻하지 않는다.

NoteBase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스키마란 대상과 사건의 규칙성을 포착하는 지식의 구조를 말하는데, 이를 글 읽기에 적용하면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의 항목에 맞추며 글의 의미를 파악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글의 내용에 대한 적절한 스키마가 있으면 글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글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글을 이해하는 출발점이 바로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라고 보는 관점이다.

① 이 이론에 따르면 글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읽기에 능숙한 독자라고 볼 수 있다.

② 이 이론은 글의 의미는 글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기보다 독자가 구성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 준다.

③ 이 이론에 따르면 글에 대하여 서로 다른 스키마가 적용될 때 글의 의미가 다르게 이해된다고 볼 수 있다.

④ 이러한 시각에서는 독해의 과정에 선행 지식이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게 하는 읽기 지도를 강조할 것이다.

⑤ 이 이론을 확대 적용하면 아는 것은 더 잘 알게 되지만 모르는 것은 계속 잘 모른다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스키마 이론에서 글의 의미가 형성되는 방식과 이 이론이 독해 및 읽기 지도에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스키마는 대상과 사건의 규칙성에 관한 지식을 구조화한 것이다. 스키마 이론에서는 글의 의미가 글 속에 완성된 채 들어 있다고 보기보다, 독자가 자신의 선행 지식과 경험인 스키마를 글의 내용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구성한다고 본다. 따라서 글의 내용에 적절한 스키마가 있으면 이해가 쉽고 빨라지며, 같은 글도 독자가 적용하는 스키마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글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수록 읽기에 능숙한 독자'라고 본 부분이다. 제시문은 독자의 능숙함을 의미 파악의 정확도로 판정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글의 내용에 적절한 스키마를 지닌 독자가 그 글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② O — 글 이해의 출발점을 독자의 머릿속에 있는 스키마로 보므로, 의미는 글 속에서 그대로 꺼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자신의 스키마를 활용하여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③ O — 독자는 자신의 스키마 항목에 맞추어 의미를 파악하므로, 같은 글에도 서로 다른 스키마를 적용하면 의미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④ O — 이해에 적절한 스키마가 중요하므로, 읽기 지도에서는 독자의 선행 지식과 경험을 활성화하고 활용하게 하는 활동이 강조된다.
⑤ O — 기존 스키마가 새 내용을 쉽게 받아들이게 하므로 아는 영역의 지식은 더 확장될 수 있다. 반대로 관련 스키마가 부족한 영역은 계속 이해하기 어려워 지식 격차가 누적될 수 있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의 '정확하게'와 '능숙한 독자'는 일반적으로 그럴듯하지만 제시문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아니다. 제시문의 핵심 기준은 독해 결과의 정확성이 아니라 글의 내용에 맞는 스키마의 유무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스키마 이론 문항에서는 의미 구성의 출발점이 독자인지, 적절한 선행 지식이 이해를 돕는지, 서로 다른 스키마가 해석의 차이를 낳는지를 확인한다. 제시문에 없는 독자의 능력 평가 기준을 덧붙인 선지는 배제한다.

암기 포인트

스키마는 독자의 머릿속 지식 구조이며, 적절한 스키마가 의미 구성과 빠른 이해를 돕는다.

NoteBase

15.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 두 점을 치는 소리
>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뇌어보지만
> 집 뒤 감나무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 보지만.
>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 내 볼에 와 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네 숨결
>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네 울음.
>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
> - 신경림, 「가난한 사랑 노래」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호소력을 더하고 있다.
③ 동일한 구문을 사용하여 운율을 조성하고 있다.
④ 가난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삶의 고난이 나타나 있다.
⑤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시상의 전개 방식, 설의법과 반복법, 감각적 이미지 등 시의 표현상 특징을 작품의 구체적인 구절에서 확인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는 사건이나 정서가 과거·현재·미래 등의 순서로 변화하는 방식이다. 이 시는 시간 순서로 시상을 전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 모르겠는가'라는 반복 구문 아래 가난 때문에 잃을 수 없는 여러 감정과 기억을 병렬적으로 제시한다. 설의적 표현은 답을 요구하기보다 질문 형식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시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지 않는다. 눈 내린 골목길, 두 점을 치는 소리,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연인과의 기억 등이 시간 순서 없이 병렬적으로 열거된다. 틀린 표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이며, 올바르게는 '반복 구문을 중심으로 여러 감정과 기억을 병렬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이다.
② O —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리움을 버렸겠는가'와 같은 의문형 표현은 가난해도 인간의 근원적 감정을 잃지 않는다는 뜻을 강조하는 설의법이다.
③ O — 각 연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 모르겠는가'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문을 되풀이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한다.
④ O — '눈 쌓인 골목길', '방범대원의 호각 소리',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등은 가난한 화자가 마주하는 삭막하고 고단한 삶의 환경을 드러낸다.
⑤ O — '눈 쌓인 골목길'과 '새파랗게 달빛'은 시각적 이미지, '두 점을 치는 소리'와 '네 울음'은 청각적 이미지, '네 입술의 뜨거움'은 촉각적 이미지를 형성한다.

오답 포인트

여러 기억이 차례로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시간적 전개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장면 사이에 선후 관계나 시간 변화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반복되는 질문 아래 외로움·두려움·그리움·사랑을 나란히 열거한 구성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시상 전개 방식을 판단할 때는 장면이 여러 개라는 사실보다 장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다. 시간 표지와 선후 변화가 있으면 시간적 전개이고, 같은 문장 구조 아래 독립된 장면이나 정서가 나란히 놓이면 병렬적 전개이다. 감각적 이미지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소리, 몸으로 느끼는 감각을 나타내는 구절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이 시의 핵심 표현은 '가난하다고 해서 ~ 모르겠는가'의 설의와 반복이며, 전개 방식은 시간적 전개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의 병렬적 열거이다.

NoteBase

16.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이러한 움직임을 이끌어 간 것은 서경덕(徐敬德),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조식(曺植), 김인후(金麟厚), 기대승(奇大升), 성혼(成渾), 이이(李珥) 등 명망이 높았던 선비들이었다.

(나) 이에 선비들은 정치 참여를 포기하고 산간 전야로 몸을 피하여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며, 뜻이 맞는 동료들과 자주 강학회를 가지면서 후진을 가르치기에 이르렀다.

(다) 서원이 참교육의 장으로서 각광을 받게 된 데에는 16세기의 사화(士禍)가 큰 계기가 되었다.

(라) 그들은 향촌의 유생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으며 거리를 헤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찾아와 배움을 청하게 되니, 자연히 명망이 높은 선비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배움의 장으로서 주목되었다.

(마) 향촌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던 선비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정치에의 참여를 시도하였으나, 그들은 당시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훈구 세력과 충돌했고 되풀이되는 사화 속에서 심한 타격을 입었다. 많은 선비들이 잡혀 죽거나 변방으로 귀양갔다.

① (다) → (가) → (마) → (나) → (라)
② (다) → (나) → (마) → (라) → (가)
③ (다) → (마) → (나) → (가) → (라)
④ (마) → (나) → (가) → (라) → (다)
⑤ (마) → (나) → (라) → (다) → (가)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문단의 중심 화제와 지시어·접속어의 호응을 이용하여 서원의 교육 기능이 부각된 과정을 순서대로 배열하는 문제이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다) → (마) → (나) → (가) → (라)
1. (다) — 서원이 참교육의 장으로 주목받은 계기로 16세기의 사화를 먼저 제시한다.
2. (마) — 향촌 선비들이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가 훈구 세력과 충돌하여 사화의 타격을 입은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3. (나) — '이에'가 앞의 사화를 받아, 선비들이 정치를 포기하고 산간 전야에서 후진을 가르치게 된 결과를 잇는다.
4. (가) — '이러한 움직임'이 (나)의 은거와 후진 교육을 가리키며, 그 움직임을 이끈 선비들을 소개한다.
5. (라) — '그들은'이 (가)에 열거된 선비들을 받아, 그들이 머문 곳이 배움의 장으로 주목받게 된 결과를 설명한다.
왜 이 순서인가: (마)의 사화가 (나)의 '이에'가 가리키는 원인이 되고, (나)의 은거·교육이 (가)의 '이러한 움직임'이 되며, (가)의 인물들이 (라)의 '그들'의 선행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다) 다음에 (가)를 두면 (가)의 '이러한 움직임'이 무엇인지 아직 제시되지 않는다. 또한 (마)의 사화 뒤에는 그 결과를 받는 (나)의 '이에'가 바로 이어져야 한다. 올바르게는 (다) → (마) → (나) → (가) → (라)이다.
② X — (다) 뒤의 (나)는 '이에'가 가리킬 구체적인 사건이 제시되기 전이므로 연결이 어색하고, (가)의 인물 소개도 마지막에 놓일 수 없다. 올바르게는 사화를 구체화한 (마) 뒤에 (나)를 두고, (가) 뒤에 (라)를 둔 (다) → (마) → (나) → (가) → (라)이다.
③ O — (다)가 사화를 화제로 제시하고, (마)가 그 사화를 구체화하며, (나)의 '이에', (가)의 '이러한 움직임', (라)의 '그들은'이 차례로 앞 내용을 받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④ X — (마)로 시작하면 글 전체의 화제인 서원 교육이 뒤늦게 제시되고, (나) 다음의 (가)는 연결되지만 (라) 뒤의 (다)는 이미 설명된 결과를 다시 일반적으로 제시하여 흐름이 역전된다. 올바르게는 일반적 화제 제시인 (다)를 먼저 두어 (다) → (마) → (나) → (가) → (라)로 배열한다.
⑤ X — (마) 다음의 (나)는 자연스럽지만, (라)의 '그들은'이 가리키는 선비들의 명단이 (가)에서 아직 소개되지 않았고 (다)의 화제 제시도 너무 늦다. 올바르게는 (가)를 (라) 앞에 두고, (다)를 맨 앞에 둔 (다) → (마) → (나) → (가) → (라)이다.

오답 포인트

역사적 사건만 시간순으로 떠올리면 (마)를 첫 문단으로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글은 (다)에서 '서원이 참교육의 장으로 각광받은 계기'라는 중심 화제를 먼저 제시한 뒤 사화와 선비들의 움직임을 풀어 간다. 특히 '이에', '이러한 움직임', '그들은'은 각각 바로 앞 내용이나 인물을 요구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중심 화제를 제시하는 문단을 찾고, ‘이에’는 원인 뒤에, ‘이러한 움직임’은 구체적 행동 뒤에, ‘그들’은 해당 인물이 소개된 뒤에 배치한다. 지시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앞 문단에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하면 순서를 확정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화제 제시 → 사건 구체화 → 결과 → 움직임의 주체 → 최종 결과의 흐름이다. 이 문항에서는 ‘사화 → 이에 → 이러한 움직임 → 그들’의 연결을 기억한다.

NoteBase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딛배 바회 깊히
> 자ᄇᆞ온 손 암쇼 노히시고
> 나ᄒᆞᆯ 안디 븟ᄒᆞ리샤ᄃᆞᆫ
> 곶ᄒᆞᆯ 것가 받ᄌᆞᄫᆞ리이다
>
> - 지은이 모름, 「헌화가」 -

① 고려 전기부터 조선시대까지 창작되었다.
② 향찰로 표기된 우리나라 고유의 시가이다.
③ 강호에서의 조화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④ 3·4조의 음수율과 3장 6구 형식으로 되어 있다.
⑤ 유학자들의 정신과 정서를 표출하기에 적합한 형식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헌화가」가 향찰로 표기된 향가임을 파악하고, 향가의 시대·형식·내용을 시조의 특징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향가는 신라 때 발생하여 통일 신라 시대에 성행하고 고려 초까지 이어진 우리 고유의 시가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로 표기되었다. 형식에 따라 4구체·8구체·10구체로 나뉘며, 「헌화가」는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 바치겠다고 노래한 4구체 향가이다.
시조는 고려 말에 형성되어 조선 시대에 발달한 3장 6구의 정형 시가로, 일반적으로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과 4음보 율격을 보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고려 전기부터 조선 시대까지 창작되었다'는 시대 범위가 틀렸다. 향가는 신라 때 발생하여 통일 신라 시대에 성행하고 고려 초까지 이어졌으며, 고려 말에 형성되어 조선 시대에 발달한 것은 시조이다.
② O — 「헌화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인 향가이다.
③ X — '강호에서의 조화로운 삶'이라는 설명이 틀렸다. 「헌화가」는 노인이 벼랑의 꽃을 꺾어 수로 부인에게 바치겠다는 내용이며, 강호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주로 조선 시대 사대부의 강호 시조에 나타난다.
④ X — '3·4조의 음수율과 3장 6구 형식'은 시조의 특징이다. 향가인 「헌화가」는 4구체이며, 향가는 4구체·8구체·10구체로 나뉜다.
⑤ X — '유학자들의 정신과 정서를 표출하기에 적합한 형식'은 주로 시조에 해당한다. 향가는 불교적 신앙, 주술적 소망, 민요적 정서 등 신라인의 다양한 사상과 감정을 담은 시가이다.

오답 포인트

①·③·④·⑤는 향가에 시조의 시대, 강호 시조의 내용, 3장 6구 형식, 유학자 중심의 성격을 섞어 놓은 선지이다. 특히 '3장 6구'가 보이면 시조를 떠올려야 하며, 이를 향가의 4구체·8구체·10구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작품명과 표기 방식부터 확인한다. 「헌화가」·「제망매가」·「찬기파랑가」처럼 향가 작품이 제시되고 향찰 표기라고 하면 향가로 판단한다. 반면 3장 6구, 3·4조 또는 4·4조, 4음보, 조선 시대 사대부의 강호·유교적 정서가 제시되면 시조의 특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향가는 향찰·4구체/8구체/10구체, 시조는 3장 6구·4음보이다.

NoteBase

1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우리가 구장님을 찾아갔을 때 그는 싸리문 밖에 있는 돼지우리에서 죽을 퍼주고 있었다.

서울엘 좀 갔다 오더니 사람은 점잖아야 한다고 윗수염이(얼른 보면 지붕 위에 앉은 제비 꼬랑지 같다.) 양쪽을 뾰족이 뻗치고 그걸 '에헴!' 하고 늘 쓰다듬는 손버릇이 있다. 우리를 멀뚱히 쳐다보고 미리 알아챘는지,

"왜 일들 허다 말구 그래?" 하더니 손을 올려서 그 '에헴!'을 한번 후딱 했다.

"구장님! 우리 장인님과 츰에 계약하기를……."

먼저 덤비는 장인님을 뒤로 떠다밀고 내가 허둥지둥 달려들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아니 우리 빙장님과 츰에." 하고 첫번부터 다시 말을 고쳤다.

장인님은 빙장님 해야 좋아하고 밖에 나와서 장인님 하면 괜스레 골을 내려 든다. 뱀두 뱀이래야 좋으냐구 창피스러우니 남 듣는 데는 제발 빙장님, 빙모님, 하라구 일상 당조짐을 받아 오면서 난 그것도 자꾸 잊는다. 당장도 장인님 하다 옆에서 내 발등을 꾹 밟고 곁눈질을 흘기는 바람에야 겨우 알았지만…….

구장님도 내 이야기를 자세히 듣더니 퍽 딱한 모양이었다. 하기야 구장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그럴 게다. 길게 길러 둔 새끼손톱으로 코를 후벼서 저리 탁 튀기며,

"그럼 봉필 씨! 얼른 성례를 시켜 주구려, 그렇게까지 제가 하구 싶다는 걸……." 하고 내 짐작대로 말했다. 그러나 이 말에 장인님은 삿대질로 눈을 부라리고,

"아 성례구 뭐구 계집애년이 미처 자라야 할 게 아닌가?" 하니까 고만 멀쑤룩해서 입맛만 쩍쩍 다실 뿐이 아닌가.

"그것두 그래!"

"그래, 거진 사 년 동안에도 안 자랐다니 그 킨 은제 자라지유? 다 그만두구 사경 내슈……."

"글쎄, 이 자식아! 내가 크질 말라구 그랬니, 왜 날 보구 떼냐?"

"빙모님은 참새만 한 것이 그럼 어떻게 앨 낳지유?(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귀때기 하나가 작다.)"

장인님은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그러나 암만해두 돌 씹은 상이다.) 코를 푸는 척하고 날 은근히 곯리려고 팔꿈치로 옆 갈비께를 퍽 치는 것이다. 더럽다. 나도 종아리의 파리를 쫓는 척하고 허리를 구부리며 그 궁둥이를 콱 떼밀었다. 장인님은 앞으로 우찔근하고 싸리문께로 쓰러질 듯하다 몸을 바로 고치더니 눈총을 몹시 쏘았다. 이런 상년의 자식! 하곤 싶으나 남의 앞이라서 차마 못 하고 섰는 그 꼴이 보기에 퍽 쟁그러웠다.

- 김유정, 「봄봄」에서 -

① '나'는 '장인님'의 태도에 불만이 없다.

② '장인님'은 '구장님'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③ '구장님'은 '장인님'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④ '장인님'은 '나'의 반론을 듣고 난처해하고 있다.

⑤ '나'는 '장인님'에게 성례를 미룰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정답 4번

NoteBase

출제 포인트

인물의 말과 행동, 서술자의 평가를 함께 살펴 인물 사이의 관계와 심리적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인물의 태도는 대사로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표정·행동·서술자의 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특히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에는 앞뒤 상황을 함께 보아 실제 속마음을 판단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나'는 '장인님'의 행동을 '더럽다', '퍽 쟁그러웠다'고 평가하고 그의 엉덩이를 걷어차기도 한다. 따라서 '불만이 없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실제로는 '나'가 혼인을 미루며 자신을 부려 먹는 '장인님'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

② X
'구장님'이 성례를 시켜 주라고 하자 '장인님'은 딸이 아직 자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한다. 따라서 '의견에 동조한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실제로는 '장인님'이 '구장님'의 성례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③ X
'구장님'은 처음에는 성례를 시켜 주라고 말하지만, '장인님'이 딸이 아직 자라지 않았다고 하자 말을 멈추고 '그것두 그래!'라며 그 말도 인정한다. 따라서 '장인님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고 단정한 표현이 틀렸으며, 실제로는 '나'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면서도 '장인님'의 주장에 뚜렷하게 맞서지 못하고 있다.

④ O
'나'는 몸집이 작은 '빙모님'도 아이를 낳았으므로 점순이가 작다는 것이 혼인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에 '장인님'은 껄껄 웃고 코를 푸는 척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고, '나'를 걷어차고 눈총을 쏜다. 이는 반박에 말문이 막혀 난처해진 태도이다.

⑤ X
'나'는 '우리 장인님과 춤에 계약하기를'이라며 약속된 혼인을 이루게 해 달라고 호소한다. 따라서 '성례를 미룰 것을 요청한다'는 표현이 틀렸으며, 실제로는 더 이상 혼인을 미루지 말고 성례를 치르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반대하고 있다'는 표현에 주의해야 한다. '구장님'은 처음에는 '나'의 편에서 성례를 권하지만, 곧 '장인님'의 말에 '그것두 그래!'라고 반응하므로 끝까지 분명하게 반대하는 태도는 아니다. 반면 ④에서는 웃음, 코를 푸는 척하는 행동, 발길질과 눈총이 모두 '나'의 반박으로 난처해진 '장인님'의 심리를 보여 준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의 태도를 묻는 선지는 해당 인물의 한마디만 보지 않고 앞뒤 대사와 이어지는 행동까지 연결해 판단한다. ‘없다’, ‘동조한다’, ‘반대한다’처럼 태도를 단정하는 표현은 지문 전체의 반응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말문이 막힌 뒤의 어색한 웃음과 회피 행동은 난처한 심리를 드러낸다.

NoteBase

19.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風霜이 섯거 친 날에 ᄀᆞᆺ 픠온 黃菊花를
> 金盆에 ᄀᆞ득 담아 玉堂에 보ᄂᆡ오ᄂᆡ,
> 桃李야, 곳이온 양 마라, ᄂᆡ의 ᄠᅳᆺ을 알괘라.
> - 송순, 「自上特賜黃菊玉堂歌」 -

① '風霜'은 바람과 서리로서 시련을 의미한다.
② '黃菊花'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신하를 비유한다.
③ '金盆'은 임금의 자애로운 마음을 보여 준다.
④ '玉堂'은 임금이 머무는 처소를 의미한다.
⑤ '桃李'는 임금에게 교언영색하는 존재를 비유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송순의 「자상특사황국옥당가」에 쓰인 한자어와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문맥에 맞게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작품은 서리 속에서도 피는 황국을 임금이 옥당에 내려 준 일을 노래한다. 황국은 시련에도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도리는 임금의 총애를 다투는 존재를 비유한다. 옥당은 임금의 거처가 아니라 홍문관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風霜'은 바람과 서리라는 뜻이며, 황국이 견뎌 낸 시련을 의미한다.
② O — 서리를 맞고도 피는 '黃菊花'는 시련 속에서도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충신을 비유한다.
③ O — 임금이 황국을 '金盆'에 가득 담아 내려 준 행위에는 신하를 아끼고 총애하는 임금의 마음이 드러난다.
④ X — 틀린 표현은 '임금이 머무는 처소'이다. '玉堂'은 임금의 자문과 문서 작성을 맡던 관청인 홍문관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⑤ O — '桃李'는 황국과 대비되어 임금에게 잘 보이거나 총애를 다투는 존재를 비유한다.

오답 포인트

'玉'이 귀하고 왕실과 관련된 글자라는 점만 보고 '玉堂'을 임금의 거처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작품 제목과 본문에서 '玉堂'은 황국을 하사받는 관청인 홍문관을 뜻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전 시가의 한자어는 글자의 표면적 뜻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작품의 문맥과 관용적 명칭을 함께 확인한다. 특히 ‘옥당’은 고전 문학에서 홍문관의 별칭으로 자주 쓰인다.

암기 포인트

풍상은 시련, 황국은 절개 있는 충신, 도리는 총애를 다투는 존재, 옥당은 홍문관이다.

NoteBase

20. 사이시옷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양잇과
② 감잣국
③ 막냇동생
④ 순댓국
⑤ 전셋방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사이시옷을 적는 합성어의 조건과 한자어끼리 결합한 합성어의 예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이시옷은 합성 명사에서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날 때 일정한 조건에 따라 앞말의 받침으로 적는 ㅅ이다.
순우리말끼리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거나 ㄴ 소리가 덧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적는다.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에는 원칙적으로 적지 않으며,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만 예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고양잇과'는 순우리말 '고양이'와 한자어 '과(科)'가 결합하고 '과'가 된소리로 나는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② O — '감잣국'은 '감자'와 순우리말 '국'이 결합하고 '국'이 된소리로 나는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③ O — '막냇동생'은 순우리말 '막내'와 한자어 '동생'이 결합하고 '동생'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④ O — '순댓국'은 순우리말 '순대'와 '국'이 결합하고 '국'이 된소리로 나는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적는다.
⑤ X — 틀린 표현은 '전셋방'이다. '전세(傳貰)'와 '방(房)'은 모두 한자어이고 이 말은 사이시옷을 적는 여섯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방'으로 고쳐 쓴다.

오답 포인트

'전세방'을 실제로 [전세빵]처럼 발음한다는 점과 예외어 '셋방'을 떠올려 '전셋방'으로 쓰기 쉽다. 그러나 한자어끼리 결합한 말은 사잇소리가 나더라도 정해진 여섯 예외가 아니면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합성어를 이루는 두 말이 순우리말인지 한자어인지 가른다. 한자어끼리의 결합이면
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밖의 말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한자어 사이시옷 예외는 '곳·셋·숫·찻·툇·횟' 여섯 말이고, '전세방'은 예외가 아니다.

NoteBase